

微生物 · 遺傳工學업무 強化

官 · 學 · 研 · 産 「特許研究會議」도 構成

特許廳은 微生物 및 遺傳工學 관련 工業所有權 업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特許廳에 따르면 微生物 및 遺傳工學 관련 工所權出願이 세계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국내 微生物기탁기관의 國際公인화, 遺傳工學 관련 審査基準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特許廳은 이에 따라 현재 국내 기탁기관인 韓國種菌協會 · 韓國科學技術院 · 遺傳工學센터의 遺傳子은행 등이 부다페스트條約에 의한 國際기탁기관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시설 인원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당국에 요청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WIPO에 國際기탁기관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特許廳은 이와 함께 微生物 및 遺傳工學 분야 審査지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응용 微生物 공업 등에 관한 審査基準을 美 · 日 등 선진국의 심사기준과 마찰이 없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特許廳은 官 · 學 · 研 · 産으로 구성되는 가칭 「特許研究會議」를 설치, 遺傳工學研究組合의 特許小委와 연계시스템

을 구축하여 微生物 遺傳工學 분야에 대한 情報蒐集, 特許

資料교환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商標制度課 新設

商標審査 公正性 提高위해

特許廳은 審査1局內에 商標制度課를 신설, 商標審査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商品分類의 선진화를 기하기로 했다.

현재 異議申請에 따른 再審은 해당 審査官을 포함, 3인制로 異議決定을 하고 있는바 최근 늘어나는 商標出願에 따라

이 3인 審査制로는 精密審査가 어려움은 물론 공정성을 잃을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신설되는 商標制度課는 이와 아울러 90년 초에 導入키로 한 國際商品分類 체계인 니스分類의 사전작업도 하게 된다.

圖形商標 카드化 추진

11월까지 完了.....民間人에게 閱覽

特許廳은 오는 11월부터 登錄商標중 圖形으로 된 商標를 카드화하여 民間人에 閱覽시킬 예정이다.

特許廳에 따르면 최근 商標出願이 증가하고 있어 이중 出願으로 인한 出願人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商標의 사전 조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登錄商標중 文字商標를 제외한 圖

形商標를 카드로 정리, 이를 閱覽시키기로 했다.

현재 登錄商標는 모두 17만 件으로 이중 圖形商標는 60% 가까운 10만 件에 이르고 있는데 오는 11월 말까지 절반가량을 카드화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카드화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